

“광주박물관 방문객 3km 돌아나가라니요”

경찰청, 다음달 5거리 직진·좌회전 신호 폐지 추진 “방문객 불편” 재고 요청에 경찰 “안전성 확보 우선”

광주지방경찰청(이하 광주경찰청)이 국립광주박물관(이하 박물관) 입구 앞 5거리 교차로의 신호체계를 3거리 체계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 박물관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박물관 입구의 진출 직·좌회전 신호가 폐지되면 연간 50만명에 이르는 박물관 방문객들이 돌아서 나가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24일 광주경찰청과 박물관에 따르면 지난 6월 열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박물관 앞 5거리 교차로의 박물관 입구와 한국도로공사 광주지사 입구 2곳의 진출 직·좌회전 신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인근 본촌 교차로에 유턴구간을 신설하고, 기존 박물관 출구 인근 횡단보도를 도로공사 입구 인근으로 옮기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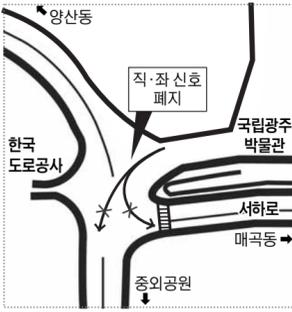
변경된 3거리 신호체계는 8월 중 적용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경찰청이 신호체계 변경 추진은 서하로와 박물관 입구 진·출입 도로가 평행선으로 놓여 있어 매곡동에서 양산동으로 향하는 차량이 신호를 받아 우회전하는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차량 통행이 상대적으로 적은 박물관과 도로공사 입구 진출 직·좌회전 신호를 폐지하면 신호 없이도 서하로에서 양산동으로 우회전할 수 있다는 게 광주경찰청의 생각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박물관에서 진출 차량은 1시간 평균 23대, 도로공사에서 3.2대 수준으로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교차로와 달리 신호를 받아 우회전을 하는 교차로의 특성 때문에 해당 교차로의 범행행위 신고 건수가 지난해 420여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박물관의 생각은 다르다.

국립광주박물관 교차로 신호 변경안



입구의 진출 직·좌회전 신호가 없어지면 박물관에서 운암동과 매곡동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찰청이 대안으로 제시한 인근 본촌 교차로의 유턴구간도 유지원이나 단체 외국인 관람객들을 태운 버스는 이용할 수 없고, 일반차량의 유턴도 출·퇴근 시간

대에는 더 큰 교통혼잡을 야기한다는 게 박물관이 신호체계 변경을 반대하는 이유다.

또 버스정류장과 인접한 횡단보도를 도로공사 입구 쪽으로 옮겨 설치함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해 박물관을 찾는 방문객들이 우회하는 불편도 예상된다.

연간 박물관 관람객은 2013년 54만5480명, 2014년 49만58명, 지난해 52만6032명 등으로 50만명에 이른다.

박물관 관계자는 “입구의 진출 직·좌회전 신호가 사라지면 서광주IC로 향하는 차량은 기존 800m 거리를 3km 이상 우회해야 하고, 시간도 4~9배 가량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서하로에 교통범규위반 해소를 위한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쪽으로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호체계 개선으로 박물관 방문객들이 겪는 ‘불편’보다 ‘교통체증 해소’와 우회전 차량의 ‘안전성’ 확보가 더 우선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6 해질 19:41
달출 23:08 달몰 10:54

방가운 소나기

일부지역에 소나기와 함께 전동-번개가 치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구름많음	25/33	보성	구름많음	24/32
목포	구름많음	24/33	순천	구름많음	24/33
여수	구름많음	24/31	영광	구름많음	24/33
나주	구름많음	23/33	진도	구름많음	24/32
완도	구름많음	24/31	진주	구름많음	24/33
구례	구름많음	23/33	군산	구름많음	25/31
강진	구름많음	24/32	남원	차차흐려져비	24/33
해남	구름많음	24/33	홍산도	구름많음	23/28
장성	구름많음	24/33			

바다 날씨

지역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동	남동	0.5	남동	0.5
	남서	남서	0.5~1.0	남서	0.5~1.0
남해	남동	남동	0.5~1.0	남동	0.5~1.0
	남서	남서	1.0~1.5	남서	1.0~1.5
제주	남동	남동	1.0~1.5	남동	1.0~1.5
	남서	남서	1.0~1.5	남서	1.0~1.5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자외선	매우높음
미세먼지	보통

주간 날씨

26(화)	27(수)	28(목)	29(금)	30(토)	31(일)	8/1(월)
☀️	☀️	☀️	☀️	☀️	☀️	☀️
24/33	25/32	24/31	24/32	24/32	24/32	24/32



“소리 질러~” 광주 학생들로 구성된 밴드 동아리 ‘데이엔데이’가 23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 민주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5회 청소년축제’에서 관객들과 호흡하며 힘있는 공연을 펼쳤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주말 금남로 ‘이열치열’ 젊음의 열기

청소년축제 성료... 1000여명 참가 예술 경연·농구대회

‘가’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한 청소년들로 광주 금남로가 후끈 달아올랐다. ‘제5회 청소년축제’가 23일 오전 10시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 민주광장 특설무대 일대에서 펼쳐졌다. 광주일보와 4아시아문화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학교생활·입시 등으로 지친

청소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을 주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것으로, 광주·전남 청소년과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해 젊음을 만끽했다. 행사는 청소년 동아리팀의 밴드 공연을 비롯해 합창·댄스·풍물놀이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예술 경연과 3대 3 길거리

농구 대회로 나눠 진행됐다. 대학 인기 동아리 공연팀의 특별 공연도 곁들여지면서 현장 분위기를 달궜다. 청소년들은 십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에도 어랑곳없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열띤 경연을 펼쳤다. 경연에 참석하기 위해 안도에서 새벽에 출발하는가 하면, 행사장에서 경연 훨씬 전부터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에 몰두하는 청소년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날 경연 결과, 공연 부문 영예의 대상(교육부장관상)은 팝핀 댄스 중심으로 한 공연을 선보인 남여 고교생 혼성 댄스 동아리 ‘Area51’팀에게 돌아갔다. 광주·전남 주요 대학들도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진로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제공하며 청소년들의 발길을 붙들었고 광주교육청도 상담 코너를 운영했다. 경찰도 행사장 일대에서 4대약 적절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코너를 운영하며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대, 총장 간선제 학칙 개정 착수

교수·직원·학생 합의 없이 개정안 공고...진통 예고

전남대가 간선제 방식을 유지한 총장 선출 규정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학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간선제 방식은 교수·직원·학생 등 구성원간 합의를 거치지 않은 대학본부 독자적 규정이라는 점에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24일 전남대에 따르면 지병문 전남대 총장은 지난 21일 학내 게시판에 총장 선출과 관련, 담화문을 올리며 ‘총장인 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남대 교무처는 이에 따라 22일 ‘총

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에는 총장 임기(12월20일) 만료 60일 전까지 교수 등 200명이 참여하는 정책평가와 나머지 교직원, 학생회장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로 거쳐 45일 전까지 임용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지 총장의 간선제 방안은 5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거친 뒤 규정심의위원회에 상정되고 이후 평의원회와 학무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교수를 비롯한 구성원 반발이 불가피해 평의원회 통과 여부 등은 미지수다. /김지을기자 dok2000@

광주 북구 ‘정기인사 후유증’

“라인 따라 차별”...내부 게시판 불만 성토·노조 성명

광주시 북구가 정기인사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노조는 인사의 근본원칙이 무너졌다고 주장하고 나선 상황이다. 24일 북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18일 319명(승진 84명, 전보 235명)에 대한 하반기 정기인사를 했다. 인사 이후 일부 공무원이 내부 게시판에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남기고, 노조가 인사 문제를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OO라인’ ‘△△라인’ 등 특정 라인을 중심으로 인사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다는 문체도 지적된 상황이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북구지부는 지난 21일 내부 게시판에 올린 성명서를 통해 “인사원칙이 무너지고 자리가 소위 특정 ‘라인’을 중심으로 자기 사람 챙기기가 횡행해 왔음은 더 이상 비밀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511-중-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

보청기

"불만족 100% 환불"

불만제로에 도전한다!

"울리지 않고 잡음 없이 깨끗한 소리 착한 보청기"

출장문의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착안보청기협동조합
출장문의